

오차노미즈여대에서의 교환학생

이화여자대학교

오지영

아직은 멀게만 느껴졌던 오차노미즈에서의 교환생활을 끝내려니,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갖고 일본에 도착했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벚꽃이 피어 있었는데 지금의 무더운 열기 아래에 있다 보면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에서, 그리고 오차노미즈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즐거운 교환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일본어로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었는데 오차노미즈의 유학생 대상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지 앉아서 수업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표를 준비하고 다른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일본어 실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기와라 선생님의 일본사정연습 3A 수업은 일본에서의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인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외에는 일본의 다양한 곳을 가보면서 직접 일본을 경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도쿄의 큰 장점이 가까운 곳에 정말 많은 미술관과 공원이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쿄의 미술관과 공원을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에 여행으로 왔을 때는 시간이 부족해 누리지 못했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도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가마쿠라, 요코하마, 가와고에와 같은 도쿄 근교는 물론이고 시간을 들여서 오사카와 교토에도 놀러 갔습니다. 지역마다 도쿄와는 다른 특색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다양한 풍경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보낸 시기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여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츠리와 불꽃축제에 참가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유카타를 입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더위도 잠시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도 일본에서의 여름은 추억으로 남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의 5 개월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긴 시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알차게 보내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했던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게 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곳에서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한 채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입국과 유학 관련 복잡한 서류 절차를 도와주신 국제과의 오노 선생님, 교환학생으로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해 주셨던 하기와라 선생님, 그리고 항상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해 주시며 저의 유학 생활을 응원해 주셨던 지도교원이신 유카와 선생님, 기숙사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신 오토와칸의 관리인 분들, 오차노미즈의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즐거운 교환 생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